제25대 총학 건준위 사업 활발

서울캠퍼스 도서관 공청회등 공약이행과 대선운동 본부 발족

서울캠퍼스 제25대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이하 건준위)는 선거공약실천사업 및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건준위는 제25대 선거평가 및 공약점검, 집행부구성, 대선준비 사업 등 3가지계획을 설정해 진행시키고 있다. 제25대 선거평가 및 공약점검은 지난 11일 선거평가를 실시하여 예전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학생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준위는 지난 16일 관리과에 학내 건물의 난방 가동을 요청하여 지난 주부터 교내 난방이 가동되고 있다.

건준위는 지난 10일 오후2시 도서관 2층 휴게실에서 도서관공청회를 열어 도서관 제반문제의 장·단기적인 해결을 위해 도서관 사무국장등 학교측과 일반학생들과의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건준위는 학내 제 단체들과 연계해 공명선거협의회를 구성, 올바른 투표문화형성과 주권행사 도모, 부정선거 감시등을 선거기간 동안 실시한다. 주권행사에 대한 선전은 부재자투표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이루어 진다.

건준위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1월중 제25대 총학생회 집행부를 구성하여 내년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천준호(사학·4) 제25대 총학생회장은 "일반 학우들과 함께 하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93년도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며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밝혔다.

한편 제21대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대선운동본부를 발족해 지난 18일 서울역 앞에서 공정 선거 피켓팅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25일부터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확성기방송을 학생회관에서 시작한다.

'의황' 편집부 원고 공모
의대생 대상, 12월31일까지

서울캠퍼스 의과대학교지 '의황' 편집부는 '제12회 의황문화상'에 출품할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본교의대 재학생으로 의료사회에 대한 논문과 시·소설·수필·회곡 등의 각 문예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원고마감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다.

의황편집부 자체 심사에 의해 선발된 각 부문 1편의 당선작은 5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의황 13호에 실리게 된다.

공정선거 실현 위한 '사람방' 외대 한누리 소극장에서

외대 학생회는 오는 24, 25일 한누리 소극장에서 '공정선거실현을 위한 외대 사람방'을 연다.

일일 찻집 형식으로 이번행사는 공정선거실현의지와 공정선거감시단(이하 공감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단의 활동 비용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동연' 2차 정기대표자 회의
공정선거감시단 발족식도

수원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오는25일 오후4시 사회대 108호 강의실에서 2학기 '2차 정기대표자회의'를 갖는다.

동연은 이날 회의에서 2학기 사업평가를 비롯, 각 동아리회원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감시단의 발족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중선관위 이하균 총예협장 당선확정

현총예협, 선거과정시 드러난 오류 재선거로 극복 요구

수원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지난 19일 치기 총학, 총여, 총예비여협의 회장의 당선을 공고했다.

중선관위는 지난16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선거 시행세칙상 총예비여협의회(이하 총예협) 투표권자는 명부에 날인한 자를 기준, 1천2백86명으로 결정짓고, '77%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투표참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총예협장에 이하근(조경·4) 후보와 당선을 확정지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선관위장인 이영석(사회대 경영·4)군은 "이후 선거에서는 참관인의 보다 많은 확충과 철저한 선거의 사전준비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학우에게 선거인단 명부가 늦게 나온점, 10표의 오차가 발생한 점등을 공개 사과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현2대 총예협에서는 투표율 77%라는 것은 유권자에서 4학년을 제외시켜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린 것이라며 예비역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학년을 포함했다면 실제 득표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 총예협은 "선거실시전부터 중선관위에 취업문제가 다급한 4학년의 특수성을 고려, 피선거권을 4학기이상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했으나 선거가 중선관위 고유영역"임을 밝혀 총분회 반영시키지 않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한 중선관위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 현 총예협장 신상호(서반아·3)군은 계속해서 선거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재선거 실시를 위한 전체 예비역들의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 밝혔 총예협선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복위 컴퓨터 특강 실시

서울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는 오는 12월28일부터 2월19일까지 동계 C언어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십십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기초문법, 고급문법, Graphics, Pointer, 구조체, Union등 이상영씨가 강의한다.

접수는 오는 12월27일까지 경희서점센터, 한생회관마접에서 실시한다.

교수협의회 평의원회의 개최

회칙수정안, 선관위 구성 논의

교수협의회는 제15차 평의원회의를 오는 30일 오후4시30분 삼구정동 부폐 경북궁에서 갖는다.

평의원회의는 회칙 수정안 통과 및 결산 감사보고, 회칙개정안 통과, 교수협의회 임원 선출이 있게 된다.

교수협의회 정기총회는 오는 12월21일 오후2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수협의회의 업무 및 결산 감사보고, 회칙개정안 통과, 교수협의회 임원 선출이 있게 된다.

디스코 클럽의 질주(?)

◇…'93경희는 그대가 주역

고환골에 웅웅들을 으쓱하게 만드는 발걸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입시상담차 본관을 드나드는 활짝한 얼굴들이 고 주인공들, 전화문제로 고민하던서도 무심코 지나치는 고환골 웅웅들이 못내 부러운 듯 시선을 뗄 줄을 모르는데.

고환골 93년을 빛낼 주역이 될 그대들에게 무작정 악수라도 청하고 싶은 마음이 노트구만의 호통같은 아닐지외다.

◇…거리에서는 조용하게

서천골 거리거리가 떠때로 디스코 클럽을 방불케 한다는데.

교내를 질주하는 일부 웅웅들의 자가용에서 흘러나온 노래가락이 디스코클럽 못지않은 음악을 제공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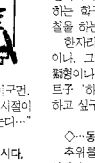
운전자의 귀엔 그 소리, 흥겨울지 모르나, 보행자 귀에는 소음일 뿐인것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 하늘도 무심하시지.

모처럼 집떠나신 숭창아저씨들이 몸상 지으시며 돌아서다는데.

쌈, 모우, 고추 등을 직접 관매하려고 트럭까지 동원해 고환골에 입성한 바로 그날, 난데없는 폭우에다 웅웅들의 무관심으로 고스란히 집을 싸실 수 밖에.

턱없는 추곡수매가에, 팔이놓은 무우는 주인을 못찾고, 고환골 동냥을 만나 뭐 일 좀 해볼려는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고 웅웅의 반항아(?)를 선도하겠다는 외지는 가족시랑(?)의 표본이오마는, 감히 어디 앞에서 그런 소릴 하시는지 우리네 백성도 할말 있소이다. "난 그대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외다"



◇…학구파와의 전쟁

서천골 도서관에 일부 웅웅들, 학구파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화제라단데.

사실인즉 방을 뜸 탄 꼬웅웅들, 한자리에 오랫동안 장기집권(?)하는 학구파들의 책에 빨간라카칠을 하는 게릴라전을 펼쳤다고.

한자리에 장기집권하는 웅웅이나, 그렇다고 책을 못쓰게하는 웅웅이나 그 보통죄는 양심에 노트구 '하얀라카' 한장자를 선물하고 싶구료.

◇…동창군도 놓이는 운정

추위를 잊을 정도로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곳이 있다하기에 노트구 알아보니.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험생들의 방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노조아저씨들의 모습이더라. 이거울 비롯 모피코트는 없다하지만 따뜻한 인정에 비할바 되겠소.

朔風

쓸모없는 급 처방전

열 붙이라는 숫자는 서구사회에 있어서 웰빙니즘에서나 헤븐리즘에서나 공히 신비롭고 의미있는 숫자이다. 지난 주 세간에 회자된 '알자회'사건의 회원도 열 둘의 인원을 그 구성원으로 한다고 한다.

이들의 결성 동기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다" "알고 지내자"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 취지는 얼마나 소박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가. 그러나 외면상으로는 친목단체이지만 그 내용은 이익집단으로서의 시조지으로서 5.6광화국시절의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

기별 12인 씩 107명 결쳐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이 사조직은 비밀로 회원을 가입시켜 비밀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사실, 회원들이 대부분 영남출신인 사실, 좋은 보직을 위해 상부상조한다는 사실 등의 유사점만을 보아도 하나회와 다를 것이 없다. 하나회의 위용을 생각해보라. 육사 11기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12·12와 5·17쿠데타의 회려한 주역들을 배출하고 결과적으로 80년대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한 군부세력이 아니던가. 그 회원 두서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지역편파주의의 뿌리를 만들었으며 정계, 재계, 관에 진출한 그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끼친 폐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회건 알자회건, 군의 사조직이 곱게 보일 까닭이 없다.

민주당 강창성 의원의 폭로에 의하면 알자회는 육사 117부터 217기까지의 '하나회' 227기부터 337기까지의 '한나회', 34기부터 437기까지의 '알자회'등 육사출신 내 사조직은 이름을 달리하여 맥락을 잇고있는 일련의 이익집단인 조직이라고 한다.

이는 획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다시 종적으로 연결하는 군내 병도조직으로서 이들은 특히 주요보직에 서로가 서로를 추천함으로써 인사에 불공정한 혜택을 독점해왔고 세칭 군의 노른자위 행세를 하여왔다.

그들의 혜택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파급된다. 하나회의 경우 군내 사적 결사체가 군내의 지휘계통을 문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야심과 권력욕이 민간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된 불행한 사태를 빚지 않았는가. 그 결과로 현재에도 군부세력이 국가 최고통수권자와 긴밀한 인적관계를 유지하고 적지않은 혜택을 받으며 얽혀있다. 이들 세력이 군 밖에서도 두터운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과 연계되어 군 안팎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봄때 그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알자회가 여론화되자 그 대책으로 군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더욱 감정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논란을 일으킨 사조직 상실에 대한 가차없는 제명처분 역시 또다른 집단 브록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군 수뇌부의 치유책이 근본적이지 못한다는 뿌리깊은 불신은 어쩔 수 없다.

점용운동 운운은 선거를 염두에 둔 이미지정책처럼 보이는 것은 과연 우리의 시각이 비꼬여 있는 탓일까? 그러나 이제 군부정치에의 꿈을 가당치도 않은 세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새정부선출과 출범에 앞서 군부와 얽혀 있는 많고 많은 비리들의 뿌리를 뽑아내야야 할 것이라는 것은 빈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旌〉

도깨비 N 제 155 회

장 세 찬

독자를 생각하는 광고인

—김경화동문(사회대 경영·83년졸)을 만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도전과 성취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작고도 소중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국일보 광고국 과장 김경화(사회대 경영·83년)동문을 만나보았다.

광고주와의 만남을 통해 어디에도 실리지 않은 새로운 광고를 따내고 지면을 꾸미는 것이 김동문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는 약속시간과 마감시간에 쫓기는 탓에 때와 장소의 구분없이 발로 뛰어야 하고, 휴일도 많지 않아, 예쁜게 자랄 두딸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채 열심히 뛸 수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광고를 제공한다는 프로정신에 입각한 자부심 때문"이라고 한다. 82년 4학년시절, 전파매체와 인쇄매체의 광고효과면 차이에 대한 졸업논문을 준비 하던때부터, 광고에 관심을 가졌던 김동문은 졸업후에 잠시 사업을 했었다.

그러나 여러이유로 사업이 실패한뒤에 대학시절부터 관심분야였던 광고업계로 뛰어들게 된 것이다. 김동문은 "한때의 실패였지만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며 이미 추억이 되어버린 시절을 회상한다.

수원캠퍼스 첫해 입학생인 김동문은 초창기 수원캠퍼스에 대해 불만도 많고 기대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회 활동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였고 지금도 그런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런시절 참여했던 '청지회'라는 농촌봉사모임은 김동문에게 남을 돕는다는 즐거움을 깨우쳐 주었고 농촌봉사를 통해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고싶다고 말한다.

각자의 전문분야 개척해야

감각적·상업적으로 흐르는 현 광고계 문제점 지적에 대해 김동문은 "언론사가 유지되기 위해 광고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고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언론사가 광고수익에 의해 은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광고의 특성상 감각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광고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 광고비 초과지출로 인해 도산되는 중소업체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쟁광고와 옥심광고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남에게 정직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신조아래 생활한다는 김동문은 달콤 심각하지는 취업난에 대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취업요인들을 섭렵, 자기 전문분야를 이루어야 한다"고 취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보낸다.

〈박경화 記者〉

복수전공 이수 신청

1. 기 간: '92. 11. 25(수)~11. 27(금)
2. 장 소: 단과대학 교무실
3. 자 격:
   '92학년도 현재 2학년 재학생으로서 3개 학기 동안 파탁없이 평균평점 2.5(c+)이상인 자.
4. 신청학과
   의약계, 사범계 및 예·체능계를 제외한 전학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전공과 동일한 타 캠퍼스의 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5. 신청방법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작성한 후,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대학 교무실에 제출한다.
6. 허 가
   교무과에서는 1, 2학년 4개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사정하여 3학년 1학기 개강 2주일 전까지 통보한다.
7. 기 타
   가. 복수전공신청자는 2학년2학기 성적표를 수령한 후,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반드시 성적정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상기 외의 사항은 복수전공실시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서울캠퍼스교무처장

일본동경국제대학 학점교류 교환학생 선발공고

1. 파견대상교: 일본동경국제대학
2. 선발인원: 약간명
3. 교육기간: 1993. 4. 1~1994. 2. 28
4. 수강과목: 해당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과정 내의 교과목
5. 학점인정: 시험, 리포터등을 통하여 동경국제대학의 지도교수가 성적을 평가하여 본교로 통보하고 해당학과에서 이를 학점취득으로 인정함.
6. 비용
   1) 등록금: 경희대학교에서 납입
   2) 항공료 및 숙식비: 학생본인 부담
7. 신청자격: 본교 학부 재학생
   (정상관련학과 및 국제관련학과에 한함)
8. 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재학증명서 1통
   3)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4)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각 1부
9. 서류접수기간
   1992. 11. 23(월)~12. 10(목)
10. 선발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일자는 개별통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사무국(구내 0031)으로 문의 바람.

1993학년도 해외 유학대상자 선발공고

1993학년도 해외 유학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선발인원: 지역별 약간명
2. 유학대상지역: 미국, 러시아, 대만, 중국, 일본지역
3. 신청자격
   가. 본교 졸업(예정)자 또는 본교 대학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만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나. 학부3, 4학년 성적이 평균 3.0이상인 자
   다.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4. 선발자 대우: 등록금 면제
5. 구비서류:
   가. 해외 유학신청서 1부
   나.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1통
   다.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1부
6. 서류접수기간
   1992년11월23일(월)~12월10일(목)
7. 선발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8. 시험일자: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사무국(961-0031~2)으로 문의바람.

국 제 교 류 위 원 장

공 고

1993학년도 제1학기 우수, 모범장학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일정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1992년11월23일~12월11일
2. 장학금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소속학과사무실
3. 발 표
   신청자중에서 수혜대상자를 학과별로 선발하여 93년1월중에 발표함

※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치 않으면 우수, 모범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수원캠퍼스 학생처장

연암장학생 모집 요강

1. 신청자격 요건
   정규 4년제 대학1학년 재학생('92. 11. 1 기준)으로서
   가. 인물, 사회계 및 자연계 분야 전공학생(의·예체능계 제외)
   나. 1학년 1학기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80점이상인 학생
   다. 보호자의 년 거산세 및 종합 토지세 납부액이 3만원 미만인 학생
   라. 국비 또는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학생
   마. 1972. 1. 1 이후 출생한 학생
   (단,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1969. 1. 1이후 출생한 학생)
   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지급인원 및 지급액
   가. 지급인원: 매년 50명씩 선발하여 지급
   나. 지급 액: 1인당 년간 240만원(학기당 120만원)
3. 지급기간: 일정성적 유지시 3년간 계속 지급함 원칙으로 함
4. 선발방법

구분	선발방법	비고
1차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차	면 접	1차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제출서류
   가. 장학생 지원 신청서(당지한 소정양식) 2통
   나. 출석서(당해년 소정양식) 1통
   다. 성적증명서 1통
   라. 보호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증명서
   (생활보호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학생이 제출 1통
   마. 주민등본등본 1통
   바. 주민등본(본적·근로복무를 마친 학생만 해당) 1통
6. 지원서 교부·접수
   가. 기간: '92. 11. 9(월)~'92. 11. 23(월) 토·일요일을 제외 (주말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경우 한함)
   나. 교부처: 당해년 사무국 및 각 대학 장학담당 부서(학생처)
   다. 교부처: 당해년 사무국
   (직부처에서 접수한 것으로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50-7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0 리버뷰오피스텔 1동 2506호)
7. 기타
   가. 본 장학금은 수혜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음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해년 사무국(TEL. 787-2273~4)으로 문의 바람

재 단 법 인 연암문화재단